

2028 세계 섬엑스포 봄 조성 나셨다

목포시·완도군·진도군·신안군
서남권 4개 시·군 17일 섬 포럼
대한민국 섬의 수도 선언문 선포
국내외 섬 전문가 주제발표·토론

목포시와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 섬벨트 시·군이 17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2021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을 개최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서남권 섬벨트 4개 시·군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 시·군 도의원, 세계 섬 엑스포 유치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1부 '대한민국 섬의 수도' 선포식, 2부 전문가 초청 포럼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시장·군수가 선언문을 낭독하며 서남권 섬벨트가 '대한민국 섬의 수도'임을 선포한다. 선언문은 섬벨트의 지리적 특성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섬의 가치와 경쟁력 향상 ▲섬 보전 ▲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 ▲한국 섬의 위상과 인지도 제고 등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2부는 '한국의 섬,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강봉룡 목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외 패널의 온라인 주제 발표와 국내 패널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이 진행된다. 국외패널은 덴마크 프린스예드워드대학의 아담 그라이데호 섬 연구소 교수로서 온라인으로 '21세

기 섬의 주요 이슈'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국내 패널은 김준 광주전남 연구원 섬발전지원 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역균형·관광 연구실 황재희 박사, (사)한국섬재단 홍선기 이사장, (사)섬연구소 강제운 소장 등이 섬 관련 주제들을 발표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남권은 전남도 2165개 섬 중 (전국 65%) 1380개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해양과 대륙을 잇는 중계 기능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 할 만하다"면서 "지난 1926년 매일신보에서도 서남권을 '섬의 수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섬 발전 전략 등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 해법을 도출해 세계 섬 엑스포 유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해남 세발나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획득

해남 세발나물(사진)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획득했다. 세발나물 분야로는 전국 최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국 1위 주산지인 해남 세발나물은 무농약 재배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보급하고 있다. 세발나물 재배기술 개발의 원산지 선도적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GAP 실천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고품질 세발나물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남 세발나물은 18농가에서 2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800t을 생산, 19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다. 세발나물은 각종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균형위 '리빙랩' 선정...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아리랑 굿' 거리 조성사업

진도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추진하는 리빙랩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력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리빙랩(Living Laboratory)은 지역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수요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회혁신 활동이다. 균형위는 리빙랩을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으로 활용해 지역 대학의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는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풀뿌리 조직과 연계해 대상 지역을 직접 선정하고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진도군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아리랑 굿(Good)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 문화적·경제적 활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리빙랩은 최근 스마트시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주민 체감형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지역 청년들이 지역성장 전략사업 실행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충북 청주(청주대) ▲충남 예산(공주대) ▲경북 포항(영남대)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19일·20일 이틀간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 경쟁

생활체육동호인의 축제인 '제24회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영광스포티움을 비롯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영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협회가 주관한 이번 한마당은 게이트볼을 포함한 15개 종목에 1600여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해 경쟁과 화합 속에서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군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명랑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영광군 생

활체육한마당은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군민 누구나 각 종목별 협회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취소 또는 제한해왔으나 1일 시행된 단계별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시작하는 행사만큼 의미가 있다. 각 종목별 대회 진행 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광군 체육회 관계자는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농민중심 농업정책”...영암군 농정혁신위 출범

영암군 농정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 영암군은 최근 농정혁신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그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온 단체 대표들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 농정현안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 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농정혁신위원회의 발족은 농민이 중심이 되는 현장중심 농업정책을 펴겠다는 영암군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이번 농정혁신위원회 분위원회의 구성으로 행정과 농민 간의 농업 발전에 대한 견해차를 해소하고 지역농정의 의사 결정에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실질적인 의견수렴 추진 체계를 이뤄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에서는 박용 농민회 회장을 민간부문 위원장으로, 김중수 농업경영인회 회장을 간사로 선



정하고 앞으로 농업농촌의 농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과 자원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나갈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내년 해양수산사업 조기공모로 신속 집행

대상사업 40종 사업비 213억
이달부터 12월7일까지 접수

신안군이 경쟁력 있고 잘 사는 여촌 조성을 위해 내년 해양수산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해양수산사업 신청 대상은 어선사업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등 총 40종으로 사업비는 213억원 규모다. 신안군의 우수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구

입 임대사업과 수산물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고품질 왕새우 양식의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사업과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등도 함께 신청 받는다. 당초 신청은 매년 1월초부터 받아왔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시작해 12월7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업인,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 어업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수산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어업인들에게 개인별 휴대폰 문자발송, 어촌계장 회의 자료, 이장회의 자료 등을 통해 안내·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양수산사업의 조기 공모로 민선7기 군정 방침인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창출을 통해 잘사는 신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젝트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